성찰적 행정의 변증법적 관점: 『주역』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이 광 모**

〈目　　次〉

Ⅰ. 문제 제기
Ⅱ. 성찰적 행정과 분석의 틀
Ⅲ. 행정학 연구방법의 비판적 검토
Ⅳ. 『주역』의 변증법적 인식원리
Ⅴ.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해석학적 인식론에 기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가정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 한계는 변증법적 인식론의 시각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있다. 행정의 전체성에 충분한 모습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차원적 행정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행정연구 접근방법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성찰적 행정은 행정현상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인식론적 관점을 시사하며, 방법론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성찰적 행정을 위한 변증법적 관점은 행정가의 부단한 자기 비판적 사고와 연구방법론상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요구한다. 특히 『주역』의 변증법적 관점이 행정연구에 주는 의미는 행정 현상을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며, 행정의 모순적 요소들은 변증법의 '전체성'과 '상호관련성'에 따라 통합·조정되고, 변증법적 성찰로써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는 창조적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주역』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제시된 만물일체론, 음양론, 시위론 등은 행정연구에 있어서 다차원적 접근방법의 필요성과 모순적 개념들의 상호의존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변역, 상성, 정체 등의 사유는 행정연구의 시각을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으로 전환시켜 준다. 따라서 성찰적 행정의 변증법적 관점에 『주역』의 인식론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활성화가 행정연구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여는 중요한 행위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5-B00009).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교수.

기술이며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성찰적 행정, 실증주의, 현상학, 변증법, 『주역』의 인식원리】

Ⅰ. 문제 제기

21C 초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행정현상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정확한 미래 예측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체계 내의 모순적 행정 현상들은 관료제의 모든 부문에 발생하며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조직들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행정학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학의 과학화를 촉진시킨 행태론적 연구는 그간의 긍정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상 한계 때문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행태론의 실증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서 해석적 접근방법인 현상학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이론의 적용보다는, 주체의 관점에서 행정상황을 이해할 것이 강조되어 왔다(남궁 근, 2003: 24).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행정연구에 있어서의 접근방법은 기능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한 실증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학자나 행정실무자들은 분석적·계량적 연구 수행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능주의적 인식론은 행정의 객관적 요소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해석학적 인식론은 주관적 과정으로서 현실의 이해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현대의 복잡한 행정현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행정학 방법론의 지배적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갖는 것은 당면한 행정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실성 있는 이론의 재구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 이론은 행정인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이론이 행정에 개입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행위자들의 사회적 맥락을 고찰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개입하는 실제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서 단지 설정한 이론과 실제 사이의 단순한 인과관계만을 밝히려고 할 것이다. 행정이론은 행정활동의 사회적 맥락에 기초를 둘 때에 이론적 틀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행정현상들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의 행정세계는 여러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

용으로 인해서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정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연구에서 변증법적 방법[1]의 탐색과 적용은 그 동안 행정학 방법론으로 사용되어왔던 기능주의적 또는 해석론적 인식론의 불충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즉 이 두 인식론에 입각한 접근방법 중 어느 하나만의 선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입장을 조화시키고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 작업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과 해석학적 인식론에 기반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가정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들의 한계는 변증법적 관점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이 때 『주역』의 사유는 행정연구 방법에 어떠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떻게 성찰적 행정의 실천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선 행정 연구에 있어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존 행정 연구방법인 실증주의 및 현상학적 접근의 가정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은 변증법적 관점의 내용과 그 효용성을 제시하고, 『주역』의 사유와 방법이 변증법적 연구방법의 실천적 행위원리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Ⅱ. 성찰적 행정과 분석의 틀

1. 성찰적 행정의 필요성과 철학적 기반

1) 성찰적 행정의 필요성

현재 정부조직에는 산업사회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던 관리기준과 운영기술이 존재하며, 이 기준에 따라 관료제 조직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선의 행정 관료들은 계속 발생하는 행정문제들을 다루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더욱 더 무능해지는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모순은 산업화시대 이후 계속되어 온 것으로 신행정운동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조직관리론의 근본가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 지적운동은 학계에서 주도된 것이었고 실제 행정실무자인 관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관리상의 표준에 따른 응용기술만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관료들은 자기 자신과 행정관행을 스스로 비판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1) 변증법적인 방법이란 행정 세계의 모순, 갈등 그리고 불연속성 가운데에서 비판적인 종합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써 서로 다른 인식론, 사회적 관계, 방법, 그리고 기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대안적인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방식이다. 전종섭(2001)은 변증법이 지니는 의미를 (1)변화과정, (2)전체성과 상호 관련성, (3)갈등과 대립을 통한 발전, (4)한계의 이해와 극복 등으로 설명한다.

못하게 되었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데 유능한 관료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더욱 무능해지는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정인 모두가 자기 자신과 행정 관행을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인 것이다.

탈 근대화가 가속화 되면서 관료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성찰적 행정(reflexive public administration)[2]은 과학주의와 기술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을 비판하며 전 학문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신택, 2000; 김종술, 1999; 오석홍, 1998).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들은 Farmer(1995)의 반관료제론이나 Fox & Miller(1995)의 담론이론 등에서 보듯이 한결같이 기존의 관료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종수 외, 2005: 178-180). 행정이론의 이러한 경향들은 정보화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그동안 산업화시대에 유용했던 행정 실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철학적·실천적 행정에 있어서 더 나은 발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요구된 것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무비판적으로 관리만을 위해서 실제표준만을 강조하는 행정은 더 이상 행정현상을 진단하고, 설명하며, 처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관료제의 오래된 관행과 타성만을 반복할 뿐이다. 오히려 기존 행정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어 결국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3]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만 커지게 된다.

2) 성찰적 행정의 철학적 기반

비판적이며 성찰적인 사고는 철학적 활동이다. 행정학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행정 현상들은 대개가 사회적 관계로서 형성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거나 또는 통제 밖의 외부환경으로 인식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은 Husserl(1967)이나 Schutz(1967)가 주장하듯이 사회적으로 설정된 현실로서 신념에 의해 유지되며, 사회적으로 형성된 전형들(typicalities)을 통해서 지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처럼

---

2) Gouldner(1970: 488-490)는 성찰적 행정을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성, 그리고 행정가의 일상생활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찰적 행정을 통해서 관료제의 행태를 전환하고, 계층제의 가치를 더 적합한 민주적·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3) 김정렬(2003: 19-38)은 최근 행정학 위기를 신공공관리의 확산으로 인한 현실적 위기라고 진단하고, Haque(1996)의 주장을 인용하여 신공공관리론이 행정학에 제기하는 위기의 실상과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행정학 위기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행정학 자체가 애초부터 안고 있는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의 기본전제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분명히 서구의 분석적 사유와 자연과학적 인식론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의 세계는 '사회적으로 설정된 세계(socially constituted world)'이며, 우리의 연구 대상인 행정세계는 객관적인 인식 체계로서가 아니라, 단지 공유된 의미(shared meanings)와 습관화된 관행(habitual patterns)의 형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행정에서의 과정, 구조, 기능, 권위, 절차, 규칙 및 습관적 행위 등의 맥락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조직은 그동안 매우 효율적이었던 행정제도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행정실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조직 관리적 가정과 관행, 조직전략, 또는 지적활동 등은 분명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하여 전혀 비판적이며 성찰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만약 이를 인식한다면 행정에 철학적 인식의 발전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이유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종섭(2001: 53)은 행정의 새로운 연구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론가들이 비정형적 사고(non-paradigmatic thinking)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현재의 행정을 성찰적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정가는 부단히 자기 비판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행정의 실제 관념을 형성하고 고정시키는 수많은 행정관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조직의 계층제적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약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비록 비판적이고 성찰적이라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인은 철학적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부단히 실제 경험과 사유를 상호관계 속에서 공유하려는 신념을 가져야한다. 만약 약자나 강자 모두 상대방의 기대에 따른 역할과 행위만을 계속한다면 결코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관계와 더 좋은 과정은 거부되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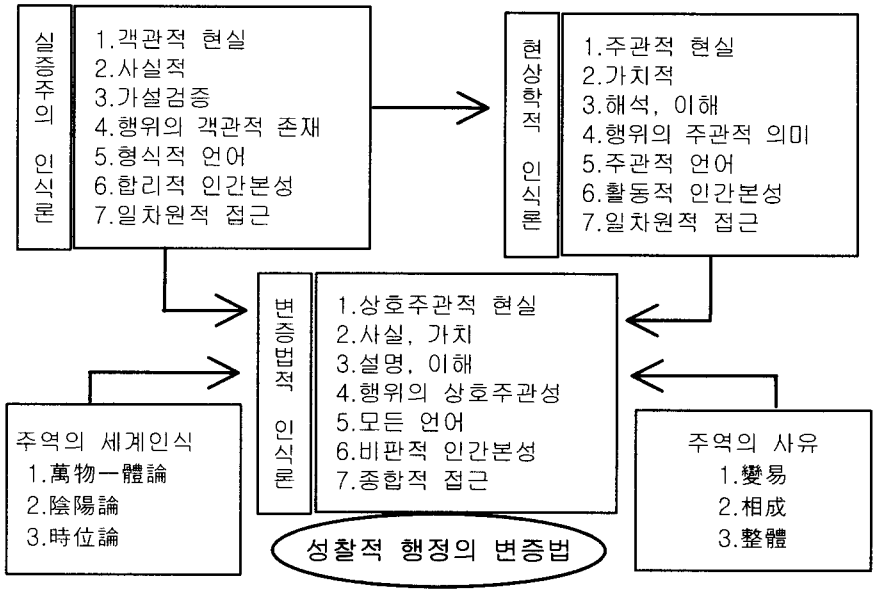
2. 연구의 분석 틀

행정학의 인식론과 방법론 등을 제시하는 연구 접근방법(이종수·윤영진, 2005: 154-171; 김영성 외, 1998: 116-125; 박수영 외, 2005: 81-88)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 방법인 실증주의와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어느 한 관점만을 따르는 연구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들이 각각 왜, 어떻게 일차원적 접근에 머물 수밖에 없는지 살펴본다.

다음은 그 대안적 접근으로 변증법적 인식론의 통합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때 주역의 만물일체(萬物一體), 음양(陰陽), 시위(時位)의 인식론과 변역(變易), 상성(相成), 정체(整體)의 사유방식이 변증법적 인식론의 기본관점에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힌다. 동시에 행정연구방법을 재구축함에 있어서 행위자간의

변증법적 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Ⅲ. 행정학 연구방법의 비판적 검토

현재 출간된 행정 및 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저서나 논문들의 연구 경향과 관심은 행정현상의 현실을 구성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소들의 맥락보다는 실증주의적 가정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는데 치중해 있다. 실증주의적 행태과학의 입장에서 행정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결국 정치·행정제도 내의 행정인의 행위나 활동이고(이종수·윤영진, 2005: 159), 리더의 어떠한 행동이 리더십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가(이창원·최창현, 1998: 255-256)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현상학 연구((phenomenology research)는 이러한 정태적 상관관계 분석에 의존하는 실증주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제시된 대안적 관점이다(남궁근, 2003: 33). 현상학에서 현상이란 인간의 의식 작용을 통하여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것을 말하며(Habermas, 1971; Husserl, 1973; Schutz, 1967),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의지가 강조된다(민진, 2004: 26). 그리고 상호주관(intersubjectives)을 통하여 타인과의 내면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그 내면의 세계까지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Harmon, 1981; 김광웅, 1989: 36).

그러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증주의 지식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인식하여야 하지만, 분석적 도구와 경험적 조사의 유용성은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가치 있는 연구결과와 정보를 너무 쉽게 평가절하 하는 현상학의 한계도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치중립적 행정의 인식론적 편견과 가치 지향적 행정의 결함을 동시에 인식해야만,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행정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실증주의 및 현상학의 가정 및 접근방법을 검토하고, 이러한 지식들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하여 본다.

〈표 1〉 두 인식론의 관점 비교

실증주의	인식 대상	현상학
객관적 현실, 분석대상, 개념화	행정현실	주관적 현실, 이해의 대상
가치중립적, 요소환원적 지식	지식활동	가치개입적, 반실증주의 지식
가설검증, 이론화, 현상 설명	탐구양식	의미의 이해, 해석
규칙·명령에 따른 수동적 행위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주관적 의미
질서유지·경험공유 수단	조직언어	주관적 의미에서의 언어
합리적·대응적·수동적 인간	인간본성	활동적·직관적·긍정적 인간
일차원적 접근	연구차원	일차원적 접근

1. 실증주의적 인식론

1) 가정 및 접근방법

근대 과학은 이분법적 세계관(dichotomy)에 기초하여 주어진 상황과 예측자료를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택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이상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여겨왔다. 이 논리는 사회과학 방법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대립적이며 양자택일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그 중 하나를 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으로 선택하여 문제를 규명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4)]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한 대부분의 행정이론들은 행정현상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개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 분업, 통합, 의사결정, 적응

4)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이 근거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김영성 외, 1998: 118; 이왕재 외, 2002: 113). (1)실재(reality)는 객관적으로 이미 존재한다. (2)행정현상은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된다. (3)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립적 관찰로 자료를 수집한다. (4)미래는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다. (5)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되며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6)자료는 계량화되고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7)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은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

등 개인 행태의 설명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론화 활동은 비판적 검토 없이 논리적으로 구축된 개념적 틀 내에서만 진행되며, 행정현상은 객관적 현실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조직의 형식적인 언어가 행정질서를 유지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환경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Simon(1968)은 행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방법론적 엄격성을 통해 행정학의 과학화를 기대했다. 즉 행정현상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가의 의사결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행정학 연구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기능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실증주의 연구방법과 학문 태도는 산업사회 구조 및 상황에서는 매우 큰 효용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 예측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 규칙성과 불규칙성, 질서와 무질서, 갈등과 합의, 경쟁과 협동, 통제와 자율, 산업사회의 원리와 탈산업사회의 원리 등 패러독스 요소(paradox factor)가 공존하는 오늘의 복잡성 시대(an age of complexity)의 행정현실에서는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비판적 성찰

실증주의적 시각에서의 연구 목적은 실재에 대한 직접적·중립적인 관찰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적 지식의 산물이다. 이 때 실재는 외부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연구자의 개념적 틀, 이론, 가설 등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실재를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자의 가치와 편견 및 선호에 따라 설정된 이론적 틀에 부적합한 요소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설정된 가설을 증명하는 것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연구자는 양적으로 계량화되고 측정 가능하며 통계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사실적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에 몰입하게 되어, 연구 대상에 숨겨진 은유적 정보의 다양한 의미를 밝힐 수 없게 되어버린다.

또한 실증주의 인식론 하에서의 이론화 작업은 개념적 틀 안에서만 이뤄지고, 가치적 측면은 만들어 놓은 개념이나 변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포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조직의 질서도 관리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며, 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잡한 행정 현상의 일부분만 설명하게 되고 포괄적인 관점은 제공하지 못하는 1차원적 설명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Hummel(1982)이 지적하듯이 조직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구체적 매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몰 인간적이며 일방적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합리적·대응적·수동적인 측면과 함께 활동적·직관적·적극적인 측면을 지닌 양면성의 존재이다. 그래서 관료제 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도 객관적·의식적 언어와 함께 주관적 관점에서 언어의 의미가 해석되고 또는 새로운 언어

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2. 현상학적 인식론

1) 가정 및 접근방법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대하여 비판적인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사회 현상 또는 실재란 사람과 분리되어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생각·언어·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된다고 가정한다. 즉 사회적 실재는 그 속에서 살고,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고, 행위 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의미와 현실적합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이종수 외, 2005: 168-169). 다시 말해서 어떤 현상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중지하고('판단중지'),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종합·분석해서 현상의 원래 의도(intention)와 의미(meaning)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항규, 2004: 231).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이론들은 행정현실의 주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징, 역할, 문화, 의미의 이해 등 개인의 일상적 경험의 공유에 연구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인 행정현상은 주관적 과정으로서 객관적 현상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사용되는 언어도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 언어로서 그 의미의 이해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객체 또는 현상은 언어의 다양한 의미가 이해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행정학에 현상학적 방법을 도입한 Harmon(1981: 45-67)은 '행위이론(action theory)'에서 인간의 행위는 합목적적이고 의도적이며, 자신의 활동과 관련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책임지는 능동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Husserl의 현상학(1931; 1965)을 사회과학에 적용시킨 Schutz(1967; 1973)도 사회현상이란 행위주체인 인간이 구성한 세계이며, 행위자는 각자의 관심과 목적, 동기, 지식에 따라서 세계를 해석한다고 본다. 김준연(1999: 177-179)도 구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객관적 존재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주체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행태의 내면적 세계의 의미(meaning) 이해를 중시하여 관료제 등에서 초래되는 비인간화 또는 인간소외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접근방식이다. 행정연구에서의 현상학적 접근은 연구대상에 나타나는 결과만을 관찰하고 기술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도형, 2004: 101). 즉, 의사소통 과정 속의 모든 행위자들이 어떻게 체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식의 흐름 속으로 빠져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2) 비판적 성찰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주관적인 철학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의식과 의도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점, 인간의 무의식적 행위나 집단규범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개별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Schutz(1967: 315)는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의심을 중지하여야 하며, 행위자는 대면적 상호작용과 간주관성을 통하여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행정현실에서 어떻게 의심을 중단할 수 있으며, 특히 관료제 조직의 계층제적 관계에서 관리자는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자신의 사전 인식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는 대면적 상호작용과 간주관성을 통하여 의미 공유가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의미가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즉 행위자들은 왜 자신들이 지닌 가정을 중단하지 못하며, 습관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Habermas(1973)는 해석학의 무비판적 태도와 현상학의 객관주의적 함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Apel(1988: 336)도 해석자는 자기의 지식을 현재의 관심과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를 의식적으로 현재에 적용하는 참여성 및 관여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도형, 2004: 103-104). 또한 Alexander (1982)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1차원적 행정 이론이라 보고 있으며, Giddens (1982)도 현상학의 이론들이 행정현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구체적인 이론적 틀을 부정하고 주관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행정의 전체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비판한다. 즉 이들의 주장은 기능주의자나 해석론적 연구자 모두 행정현상의 한쪽 측면만을 접근함으로써 복잡한 행정현실의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원적 행정이론이라는 것이다.

행정이론에서 관료제론, 구조기능주의론, 상황적응론 등은 기능주의적 이론들이고, 현상학, 민속학적 방법론, 정신분석론 등은 해석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능주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행정연구들은 행정현상에 대한 분석 및 구체적인 개념화, 그리고 개인의 행태를 설명하는 과학적 기법들을 발전시켜 왔다. 반면 해석론적 이론들은 구체적인 이론적 틀을 통해서 행정 현실에 접근하는 것을 부정하고 대신에 행정상황은 행정을 경험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행정 세계에서 해석론적 인식론의 주관적 지향은 불가피하게 기능주의자의 객관적 현실과 갈등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얼마나 행정현상을 잘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각자 부분적으로는 행정현실의 총체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한 차원의 접근보다는 다양한 지식, 객관성과 주관성, 지식과 경험의 창조적 통합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결국 행정연구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행정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계속 변화하는 과정임을 인정한다면 행정연구의 기반이 기능주의냐 해석학적이냐, 지식의 근거가 사실이냐 가치이냐 등 어느 한 차원에서의 접근만으로는 총체적 행정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인식론과 해석학적 인식론 사이에 비판적이면서 건설적인 생각이 토론되고 담론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변증법적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3. 변증법적 인식론

변증법적 인식론의 기본관점과 행정적 의미는 기능주의적 접근과 현상학적 접근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5] 지금까지 행정학 문헌에서 변증법적 개념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행정의 동태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변증법적 방법은 행정세계의 모순, 갈등, 그리고 불연속성 가운데에서 비판적인 종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서로 다른 인식론, 사회적 관계, 방법, 그리고 기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대안적인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 기본 관점

행정에는 다양하게 대립되는 수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순적 현상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에 행정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6] 변증법

5) <표2> 변증법적 인식론의 기본관점과 행정적 의미

기본 관점	행정적 의미
- 상호간 공유된 의미로서의 현실 - 사실과 가치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종합적 탐구(설명, 이해, 해석) - 상호주관적 의미의 행정행위 - 모든 언어의 활용, 새로운 언어의 창조 - 비판적, 성찰적, 통합적인 인간본성 - 계량적·질적 방법의 통합적 연구	- 변화 과정으로서 행정현실의 이해 - 모순적 행정요소들의 통합적 접근 - 갈등과 대립을 통한 창조적 해결책 마련 - 행정 한계의 이해와 극복 - 대화 및 담론의 중요성 - 다양한 접근방법의 종합적 활용

6) 행정에 존재하는 모순들의 예로는 기능주의적 인식론/해석학적 인식론, 실증주의/반실증주의, 공(公)/사(私), 객관성/주관성, 집권화/분권화, 안정/변화 등 무수히 많다. Capra(1985; 1999)는 이러한 모순들을 패러독스로 이해하면서 상대성 이론, 양자 역

은 행정현상의 일차원적 해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Jun, 1986; Schutz, 1965; Habermas, 1981). 전종섭(2001: 151-156)은 변증법적 인식론의 기본 관점과 가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변증법은 행정현실의 복잡성에 초점을 맞추며, 행정상 모순의 상호관계 등을 중시하며 통합하려 한다. 둘째, 행정문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현상이다. 셋째,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상호 활동하는 상황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해되는 변증법적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변증법적 관점에서는 인간본성에 대한 일차원적 해석을 거부하고 통합적 관점을 추구한다. 여기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일차원적 해석이란 기능주의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합리적, 수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데 반해, 해석학적 입장에서는 인간 본성을 활동적, 직관적인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종합적 접근방법은 거부되고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는 단일차원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증법적 인식론에서는 행정현실을 상호 주관적 현실로 이해하며, 사실과 가치의 통합적 지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통한 연구대상의 설명만이 아니라 연구대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며, 상호 주관적 의미의 맥락에서 행위를 이해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변증법적 접근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본성은 비판적이며 성찰적이고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구 또한 종합적 접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2) 행정적 의의

실제로 행정현상은 매우 복잡하며 동태적인 과정이다. 행정에는 기능주의적 인식론의 실증주의와 해석학적 인식론의 반실증주의 만이 아니라, 집권과 분권, 안정과 변화 등 다양한 대립적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들은 변증법적으로 접근할 때 행정현상의 이해는 더 수월해진다. 즉 행정의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하고, 이 한계를 변증법적 담론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접근이 행정연구에 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Jun, 1994: 140-144).

첫째, 행정현상은 지속적 '변화 과정(the process of transformation)'이다. 이 과정에서 부문들은 구성적 관계를 만들며, 각 부문들은 서로의 상호작용적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Hook(1970: 66)의 주장처럼 옛 의미는 새로운 의미 속에 포함되며, 서로 다른 의미는 새로운 형태 속에서 질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변증법의 '전체성(totality)'과 '상호관련성(interrelations)'의 의미이다. 변

학 등 현대 과학의 새로운 성과들을 동양사상의 음양개념과 접맥시켜 설명하고 있다.

증법적 사고는 현실을 전체로서 이해하며, 전체와 부분이 서로 관계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에 존재하는 모순적 요소들도 변증법의 틀 내에서 통합·조정되어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다.

셋째, 변증법은 '갈등과 대립을 통한 발전(development through conflict and opposition)'이다. 모순과 전체성 사이에는 변증법적 관계가 있으며, 전체성 안에 있는 모순과 대립은 갈등을 만든다. 변증법적 해결책은 대립되는 것을 이해하고 행정상황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나누는 창조적인 통합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인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며,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지를 깨닫게 된다.

끝으로 변증법이 행정연구에 주는 의미는 '한계의 이해와 극복(understanding and overcoming limits)'이다. 이는 곧 부정의 부정(negation of negation) 원칙으로 처음의 부정은 변화의 내부적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정은 그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는 행위이다. 결국 다양한 모순과 대립 속에서 행정현상은 계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변증법적으로 인식할 때, 갈등은 해소되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주역의 인식원리

위에서 논의한 변증법적 관점은 동양의 전통적 인식에 잘 나타나 있다. 동양에서는 극단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과 하나가 됨으로써 모든 대립 요소들을 해소시키려 하며, 모든 현상들은 상반되는 힘들의 수많은 조화(調和)로 묘사되고, 패러독스 요소들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7)]

특히 주역(周易)의 세계인식원리는 변증법적 관점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주역은 천지이법(天地理法)과 음양변화(陰陽變化)를 관찰하여 괘(卦)와 효(爻)를 세웠기에 사실과 당위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 즉 인간 길흉의 근거가 천지이법의 변화에 입각해 있을 뿐만 아니라, 괘(卦), 효(爻), 시

---

7) 동양에서의 중(中)이란 양끝의 가운데가 아니라 모든 대립·갈등·모순을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전체의 화합을 이룩하는 도덕률(道德律)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용(中庸)은 주관과 객관을 전부 수용하여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가장 알맞은 상태'로의 변화를 지향한다. 또한 도가(道家)에서는 대립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단일한 전체의 양극이라는 전일적(全一的)관점을 취한다(이광모·최창현, 2002). 패러독스의 대립자는 어떤 하나의 개념에 집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모든 대립하는 것은 양극적인 것임을 깨달아 하나의 통일체(統一體)로 인식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대립적인 것들이 상호 의존적인 것이라면 거기에는 항상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패러독스적 대립자(對立者)간의 역동적 균형유지(力動的 均衡維持)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면 행정상의 개념적 패러독스들도 결국은 상대적(相對的)인 것으로 전체적 조화(調和)의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다.

(時), 위(位) 등 괘의 구조 및 64괘의 내용구성방식에서도 변증법적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역의 변증법적 해석에 대한 비판[8]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역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실천적 행위원리(實踐的 行爲原理)를 제공해 주고 있음이 사실이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차원적 행정연구 접근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변증법적 관점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그 접근 원리를 주역의 사유방식(思惟方式)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다.

Ⅳ. 『주역』의 변증법적 인식원리

'무엇이 행정현실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 모색 가운데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려는 움직임은 있어왔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10] 그것은 우리 행정학이 미국행정학을 직수입한 것에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학 자체가 '경험과학으로서의 현실과학'임을 강조하면서 분석적·실증주의적 방법에만 치중해온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실증적 방법이든지 해석적 방법이든 쟁점은 세계를 인식하는 시각이 이분법적이라

---

8) 변증법적인 틀로서의 주역 해석에 관하여 高懷民(1995)은 변증법은 기본적으로 '정신/물질', '정/반'과 같은 이분법에서 출발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주역의 일원론적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비판한다. 즉 음(陰)과 양(陽)이 정(these)과 반(antithese)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음양의 조화 역시 변증법의 합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봉영(1994)도 태극(太極)이 변화 운동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시켜 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음양(陰陽)이며, 태극과 음양은 '태극이 음양 속에 있고, 음양이 태극 속에 있는 일체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변증법적 틀로서의 주역 해석 방식을 경계한다.

9) 주역의 대표적 연구로 정창수(1980)는 소성괘(8괘), 대성괘(64괘)의 구조 분석을 통해 Parsons, Sorokin, Pareto 등의 이론과 대비시켜 주역의 관점을 분석하였고, 김경동(1983, 1989)은 역경의 기본 원리를 음양 상호 작용의 변증법적 조화의 원리로 보면서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원리와 변증법적 원리를 설명하였다. 최석만(1996)은 유교가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과 존재론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며, 이영찬(1994)은 리(理)와 태극(太極), 기(氣)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리기론적 질서가 자연과 인간의 질서에 내재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0) 동양사상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내용들은 (1)서구 근대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원천으로 동양사상에 접근하는 경우, (2)동·서사상의 공존과 융합을 변증법적으로 모색하는 경우, (3)경제 발전론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적 가치를 입증하려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사상의 무리한 융합이나 공통점에 대한 집착, 또는 차이점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경계해야한다.

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주역은 '부분이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부분(一卽多 多卽一)'이라는 전일주의(全一主義/holism) 관점으로 변증법적 인식원리를 취하고 있다. 변역(變易)사유, 상성(相成)사유, 정체(整體)사유로 표현되는 변증법적 사유는 『주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유방식이며(주백곤 외, 김학권역, 2004: 208), 그 구체적 실천은 만물일체론(萬物一體論), 음양론(陰陽論), 시위론(時位論) 등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역』의 사유와 방법

『주역』은 자연에 대한 철저하고도 세심한 관찰에 바탕을 두고 성립되었으며(곽신환, 1990: 25), 본문인 '경(經)'은 64괘(64卦)이고, 해설은 괘사(卦辭), 효사(爻辭)로 되어져 있다. 변증법적 사유는 변역은 세 층차로 표현된다. 첫째는 괘상(卦象)·효상(爻象)의 변화이고, 둘째는 괘상과 효상이 상징하는 인사길흉(人事吉凶)의 변화이며, 셋째는 괘사와 효사에 의해 표시된 자연현상(自然現象)의 변화이다.

〈표 3〉 『주역』의 변증법적 인식원리

『주역』의 인식원리	
사유 방식	실천 방법
- 변역(變易) 사유	- 만물일체론(萬物一體論)
- 상반 상성(相反而相成)의 사유	- 음양론(陰陽論)/대대론(對待論)
- 정체(整體) 사유	- 시위론(時位論)

1) 사유방식

(1) 변역(變易)

괘(卦)는 양효(陽爻)인 (—)와 음효(陰爻)인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괘상의 변화는 효상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괘의 괘상은 다른 한 괘의 괘상으로 변화한다.[11] 8괘의 괘상은 각자 상징하는 바가 있지만 상호간에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효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 내면서 인간사 및 자연계의 사물변화와의 관계가 반영된다. 64괘의 상황도 이와 같다. 그리고 『주역』을 통하여 점(占)을 치는 본래의 목적은 인간사의 미래와 결말을

11) 예를 들면, 건괘(乾卦)의 괘상은 '☰'인데, 가장 아래 효인 양효(—)가 음효(--)로 변한 후엔 손괘(巽卦)의 괘상 '☴'이 되며, 두 번째 효가 양효(—)에서 음효(--)로 변한 후엔 리괘(離卦)의 괘상 '☲'이 되며, 세 번째 효가 양효(—)에서 음효(--)로 변한 후엔 태괘(兌卦)의 괘상 '☱'이 된다.

예측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며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12] 또한 '변화(變化)'는 주역의 기본정신으로 길흉(吉凶)은 일(事)에 따라 변하며, 회린(悔吝)은 때(時)에 응(應)하여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13]

역학자들은 『역경』의 변화 관념에 따라 그 의미를 확장시켜 왔다. 즉 새로운 사물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지나간 사물들은 끊임없이 소멸된다는 '변화일신(變化日新)'의 관점, 변화의 형식은 음양, 강유, 개합, 왕복 등 상반된 것의 부단한 상호 결합내지 교체라는 '음양유전(陰陽流轉)'의 관점, 사물의 변화는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반전된다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의 관점, 사물의 변화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를 측량하기 어렵다는 '음양불측(陰陽不測)'의 관점 등 변화와 관련된 일련의 변증법적 관점을 제기해왔다.

(2) 상반 상성(相反而相成)

세계의 상호 대립적인 두 측면 또는 두 가지 사물, 그 어떤 것도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고립하여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주역의 상반상성(相反相成)의 사유이다.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측면이 다른 것과 대립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립되는 측면이나 사물을 자신이 존재하는 조건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대립되는 쌍방은 하나의 통일적 사물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역경』의 가장 기본적 부호인 기(奇)의 '—'와 우(偶)의 '--'는 상호 대립적이지만, 서로 나누어질 수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 이 양자가 8괘와 64괘의 괘상을 구성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들이 서로 상이하고, 대립적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역경』의 8괘 및 64괘는 모두 쌍으로 짝을 이루면서 대립하고 있다. 즉 건(☰)은 곤(☷)과 서로 대(對)를 이루고, 진(☳)은 손(☴)과, 태(☱)는 비(☶)와, 기제(䷾)는 미제(䷿)와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된 것이 서로 번갈아 가며 서로 보충하는 것이야말로 천지만물이 발전 변화하는 기본법칙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

12) 예를 들면, 곤괘(坤卦/☷)의 괘사는 이 괘를 얻은 사람에게, 길(吉)하고 리(利)한 괘이지만, 길리(吉利)라고 하는 것도 조건이나 제한이 있어서 결국 좋고 나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坤元亨利 牝馬之貞 君子 有攸往. 先迷後得主利. 西南得朋 東北喪朋 安貞吉).

13) 예를 들면, 대과괘(大過卦/䷛)의 효사에서 "마른 버드나무가 꽃을 피우다(枯楊 生華)"라고 하고, 태괘(泰卦/䷊)의 효사 가운데에 "기울지 않고 평평하기만 한 것은 없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无平不陂 无往不復)"라고 한 것 등이 그러하다. 이는 사물이 모두 변화하는 과정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변화의 추세를 관찰하여 변화의 결과를 추리하는 것이 점(占)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정체(整體)

정체 사유는 상호 제약의 관점으로 세계를 일체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를 하나의 유기적인 총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물은 모두 상호연계와 상호 제약적 관계에 있다고 여긴다. 또 각각의 사물을 하나의 소우주로 보아 그 사물 내부의 여러 가지 요소 및 독립된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괘상은 효상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효상(爻象)의 변화는 괘상(卦象)의 변화를 일으켜서 한 괘가 다른 한 괘로 변화하게 된다.[14]

「역전(易傳)」에서도 보편 연계와 상호 제약적 관점에서 주역을 해석한다.[15] 그리고 한 효의 성질과 위치가 변하지 않아도 그 근처에 효가 변화하여 이 효가 상징하는 의의를 변화시킨다.[16] 이 역시 한 사물과 기타 사물간의 상호연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실천 방법

전통과 고전은 현재의 시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창조적으로 계승되어 생명력을 가질 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변역, 상반상성, 정체 등 주역의 사유는 만물일체론, 음양론, 시위론이라는 실천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천인합덕론(天人合德論)이라고도 하는 만물일체(萬物一體)의 방법은 자연과 인간의 존재 의미를 입체적,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상호의존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주며, 음양론의 방법은 상반적 존재가 어떻게 상호관계 속에서 작용하면서 생명적 조화를 추구해 가는지

---

14) 예를 들면, 건괘의 초효가 '—'에서 '--'로 변화하면 곧 건괘(乾卦/ ䷀)를 변화시켜서 구괘(姤卦/ ䷫)가 된다. 즉 일효의 변화는 일효 자신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전체 괘상의 변화를 조성하는 것이고, 나아가 전체 괘상의 조성은 사물의 변화를 상징하게 된다. 이렇듯 괘상과 효상은 연계적, 상호 제약적 관계에 있다.

15) 예를 들어 「서괘전(序卦傳)」에서는 64괘의 일정한 배열 순서를 말하고 있다. 천지가 있은 후에 만물이 생기므로 천지를 상징하는 건과 곤이 64괘의 처음에 배열되며,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만물이므로 건괘와 곤괘 뒤에 충만하다는 뜻의 둔괘(屯卦)가 이어진다. 이 둔은 또한 만물이 처음 태어난다는 뜻도 있어서 둔괘 뒤에 몽괘(蒙卦)가 뒤따른다.

16) 쾌괘(夬卦/ ䷪)를 해석할 때에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쾌괘는 건(☰)과 태(☱)로 조성되어 있는데 건은 강건함을 상징하며, 태(兌)는 기쁨을 상징하지만, 해석할 때는 소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군자가 소인의 명을 따르는 상이어서, 국정에 극심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처럼 괘상과 효상을 해석할 때는 괘나 효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전체 사이의 관계로서 분석하게 된다.

를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시위론(時位論)의 방법은 음양 간의 관계와 변화를 설명하는 좌표로서 어떻게 음양의 변화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하여 가장 적당한 시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인식하게 해준다.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첫째, 천인합덕론(天人合德論)이라고도 하는 만물일체(萬物一體)의 방법은 자연과 인간의 존재 의미를 입체적,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상호의존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준다. 『주역』은 자연과 인간의 융화와 조화에 관심을 두고 천인합덕(天人合德)의 경지를 추구한다. '주역'은 현실을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나아가는 것(唯變所適)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태극(太極)을 강조하며, 또한 인(仁)한 본성만으로 천인합덕(天人合德)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기에 자강불식(自强不息)하고 진덕수업(進德修業)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대(對待) 관계로 설명되는 음양론(陰陽論)에서 음양은 시·위(時·位)상에서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작용하는 생명 근원의 조화 원리이다. 음과 양은 상호 의존적 존재이며, 시공(時空)상 적절성을 갖추어야만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모든 괘상(卦象)의 판단은 그 괘와 관련된 다른 괘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진다. 음양(陰陽)은 시·위(時·位)상에서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고 작용하는 상호의존적 반존재(半存在)이므로 어느 한 쪽만으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상호작용적 접근(相互作用的 接近)의 일체화에 의해 괴리현상은 극복된다.

셋째, 시위론(時位論)의 방법이다. 시·위는 음양간의 관계와 변화를 설명하는 좌표로서 그 핵심은 중정(中正)이다. 『주역』은 관계와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음양의 변화를 시공간 속에서 이해하고 시위상 가장 적당한 중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때의 시위는 물리적 시공간이라기보다는 실천적·주관적 시공간이다. 시간상으로는 양(陽)이 앞이고, 음(陰)이 뒤이며, 공간상으로는 양(陽)은 위이고 음(陰)은 아래이다. 음양(陰陽)은 시위(時位)에 따라 호응·배척·도움의 관계를 갖게 된다. 즉 음양의 시공상 구성은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2. '대대(待對)'와 '변역(變易)' 논리

『주역』의 '대대(待對)'·'변역(變易)' 논리는 변증법적이다. '음·양'은 서로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 둘이 합하여 하나의 정체(한 덩어리)를 구성하며, '음·양'의 작용인 '동(動)·정(靜)'은 끊임없는 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며(動靜無端) 항상 움직인다. '동'의 상태에서는 물론 '정'의 상태에서도 한 덩어리로서 '천'의 작용은 계속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근본원리가 바로 변역률이다.[17]

『주역』에서는 이 대대와 변역의 두 논리를 가지고 세계를 설명한다.[18] '도(道)'가 모든 존재의 근원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두 논리를 잘 운용하여 '천(天)'이라는 하나의 정합틀이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 1년 사계절이 운행하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네 계절의 순환은 무한히 반복하며 무궁한 세상을 짜가는 것처럼 '천'의 정체적 정합 틀을 최고선으로 유지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대대'와 '변역'이라고 하겠다.[19]

괘효사들 속에서는 이들 대대의 짝들이 상호 전화(轉化)함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작은 것은 가고 큰 것이 오니, 길하며 큰 제사를 지낼 수 있다(小往大來, 吉亨, '泰·卦辭')" / 군자가 점친 것에는 불리하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不利君子貞, 大往小來, '否·卦辭')." 이 두 괘사는 대(大)·소(小), 태(泰)·비(否), 길(吉)·흉(凶)이 서로 전화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의 왕(往)·래(來)는 곧 '변역(變易)'을 의미한다. 이 '변역'에 대해 '태괘(泰卦)' '구삼(九三)' 효사(爻辭)에서는 "평평한 것 치고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가는 것 치고 되돌아 오지 않는 것이 없다(無平不陂, 無往不復)"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17) '음양'의 '대대', '변역'에 대해 왕부지는 「周易內傳」에서 "'음·양'이라는 것은 정해진 '체(體)'이다. 확연함과 부드러움으로써 각기 이물(二物)을 이루기에 서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양'은 변하고 '음'은 그에 합치하면서(陽變陰合), 교통하며 서로 감(感)하여 천하의 부지런히 힘씀을 이루는 것은 변역하는 위대한 '용' 속에 갖추어져 있다(陰陽者 定體也. 確然태然爲二物而不可易者也, 而陽變陰合 交相感以成天下之者. 存乎相易之大用. 王夫之, 「周易內傳」 1卷 上, 乾)."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왕부지는 '음·양'이 '대대'·'변역'하는 가운데 천하 만물이 생성된다면서 이것으로 '체(體)'(待對)와 '용(用)'(變易)을 분석한다.

18) "하늘과 땅의 위대한 덕을 '생(生)'이라 한다(天地之大德曰生, 「繫辭傳」 下, 1장)." ; "끊임없이 생하고 생함을 '역(易)'이라 한다(生生之謂易, 「繫辭傳」 下, 1장)." 등에서 '하늘(天)'과 '땅(地)'이라는 대대짝이 끊임없는 '변역'속에서 구체적 개별자들(萬物)을 생한다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천명(闡明)하고 있다.

19) 『주역』에서 대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괘명(卦名)을 살펴보면, '건(乾)/곤(坤)', '태(泰)/비(否)', '손(損)/익(益)', '기제(旣濟)/미제(未濟)' 등으로 이들 괘는 모두 64괘의 배열 순서에서 서로 이웃하고 있다. 이 외에 『역경』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들도 대대로 표현되고 있다. '대인(大人)/소인(小人)', '부(夫)/부(婦)', '장부(丈夫)/소인(小人)' 등이 그것이며, '길(吉)/흉(凶)', '득(得)/상(喪)', '리(利)/불리(不利)' 등도 대대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라 하겠다.

3. 행정연구에 주는 함의

1) 일차원적 행정연구방법의 극복과 통합

현재행정학 연구의 주된 접근방법은 표준과학관에 입각한 실증주의 접근(positivism approach)이다. 이 실증주의 접근방법은 연구대상을 인간의 행태에 두고, 상호작용의 법칙성을 발견하여, 이를 통해 인간의 행태를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려고 한다(김항규, 2004: 209). 그러므로 행정현상 이면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y approach)은 외부로 나타난 현상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급히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현상의 본래적 의도와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며, 행정현상의 특성을 주관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학의 주관적 지향성은 실증주의의 객관적 현실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둘 모두 복잡한 행정현실의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차원적 행정이론에 머물고 말게 되는 것이다.

만약 행정이 기능주의적 또는 현상학적 인식론에 따라 행정현상의 어느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여 접근한다면, 복잡한 행정현상의 일부분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도구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은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증법적 사유는 사물의 대립과 통일 그리고 발전 변화 및 상호연계의 관점으로 실제 행정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변증법적 사고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데 필요한 행정비판의 수단이 되며 기존접근방법의 가정이나 습관적 행위에 비판적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더 나은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변증법적 시각은 『주역』의 근본적 사유로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바와 같다. 주역의 변증법적 관점은 행정연구 접근방법에 있어서 실증주의 또는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일차원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역』은 단지 동태적 시각만으로 사물의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주역에는 정태적 관점의 논리적 사유가 있어서 개체 사물들 사이의 차이와 내재적 구조를 분석하여 그 사물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면 실증주의냐, 반실증주의냐의 쟁점들은 극과 극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나누며, 약점을 보완시켜주는 상호관계로 이해되어 연구에 있어서 좀더 개방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행정연구에서 실증주의와 반 실증주의는 창조적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가정이나 관습에 대한 방어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완 가능성에 더욱 개방적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예측된 결과나 기술적 기법에 충실하기 위하여 어떤 행

동을 습관적으로 행하려 하면 변증법적 접근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최고의 실천적 행위는 자신의 행태 및 환경과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라 하겠다.

2) 행정상 개념적 패러독스의 이해와 극복

『주역』에서의 자연과 인간은 서로 교감(交感)하고 감응(感應)하는 통합적 관점을 취하는데 이를 김재범(2001: 124)은 기 일원론적 유기체사상(氣一元論的 有機體思想)[20]으로 설명한다. 이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려는 요소환원주의(reductionism)와는 매우 다르다. 즉 만물은 상대를 통해 존재한다는 대대적(對待的) 인식원리는 음양론(陰陽論)에 잘 나타나며,[21] 이는 이원론(dualism)의 인과적 사고(cause and effect thinking)가 아닌, 일원론(monism)의 상관적 동시성(interrelative synchronism)의 인식원리이다. 그러므로 변증법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통한 발전(development through conflict and opposition)'이란 것은 곧 대립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상황에서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이해하면 대립적 극복은 가능해진다.

주역의 '대대(待對)'·'변역(變易)'의 논리는 유가의 사상으로 이어져서 전체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항구불변으로 여기거나 고집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대대'의 관계로 인식하고 그 변역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은 임금(君) 대 신하(臣), 어버이(父) 대 자식(子), 지아비(夫) 대 지어미(婦), 어른(長) 대 어린이(幼), 친구 사이(朋友)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의 항(項)으로 존재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時·空)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통찰했던 것이다.

주역의 '대대', '변역'의 두 논리는 『논어』의 '충서(忠恕)',[22] 『대학』의 '혈구지도(絜矩之道)'의 바탕이 되었고, 『중용(中庸)』에서는 '화(和)'가 되어 사물이 제자리를 잡게한다. 이처럼 유가의 최고 덕목인 '충서'·'극기복례'·'화'의 근본 논리

---

20) 기 일원론적 유기체론이란, 일체 만물이 생명력 자체인 기(氣)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체 만물을 하나라고 보는 '일즉전(一卽全) 전즉일(全卽一)'의 사유 방식을 말한다.

21) 음양(陰陽), 천지(天地), 건곤(乾坤), 강유(剛柔), 남녀(男女), 존비(尊卑), 고저(高低) 등의 대대 관계뿐만 아니라, 음효(--)와 양효(—)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64괘에서도 건괘(乾卦)/곤괘(坤卦), 태괘(泰卦)/비괘(否卦), 손괘(損卦)/익괘(益卦), 기제괘(旣濟卦)/미제괘(未濟卦)의 대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2) '충서'란 정성을 다하여 상대를 대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조하지 않음(己所不欲, 勿施於人)'이며, '자기가 서고 싶을 때 남을 세워 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을 때 남을 도달케 해 준다(夫人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論語, 雍也)'라는 인(仁)의 덕목과도 부합된다.

를 이루는 '대대'·'변역'은 유가철학의 근본으로 일관되어 있다.[23)]

행정연구에 있어서도 행정 현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순과 대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로 인식될 때 그 갈등과 대립은 새로운 차원에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표4〉 행정상의 대립적 개념들

주요 이론적 모순			행정 연구에서의 모순		
· 도구적 합리성		· 실질적 합리성	· 실증주의		· 반실증주의
· 역사적 이데올로기		· 생생한 경험	· 설명		· 이해
· 객관성		· 주관성	· 실재주의		· 명목주의
· 균형	↔	· 불균형	· 사실	↔	· 가치
· 안정		· 변화	· 보편적 법칙		· 개별적 사례
· 동질성		· 다양성	· 거시적		· 미시적
· 행정의 과학화		· 행정의 예술화	· 계량적		· 질적
행위 및 행태에서의 모순			**정책 및 행정적 모순**		
· 규범		· 일탈 행위	· 집권화		· 분권화
· 행정 儀式		· 개인적 습관	· 조직 목표		· 개인 욕구
· 무의식적	↔	· 의식적	· 능률	↔	· 참여
· 대응적		· 능동적	· 구조		· 과정
· 자유의 제한		· 선택의 자유	· 권위		· 자율
· 조직에 충성심		· 사회윤리	· 수렴적 해결		· 발산적 해결

자료: 전종섭(1994: 139)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표5>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에는 수많은 개념적 패러독스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적 개념들도 '대대'와 '변역'의 변증법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창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들이다(이광모, 2003: 39). 서로 다른 대립적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증법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통합은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지닌 이론적 확신에 따라 습관적으로 어느 한쪽 개념만을 고집하는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변증법적 담론을 활성화하는 유연적 연구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23) '인·의·예·지·신'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다. 『맹자』의 '마음을 다함(盡心)'·'성을 앎(知性)'·'호연지기를 선양함(善養浩然之氣)'·'놓아버린 마음을 찾음(救放心)', 『대학』의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 송유(宋儒)들의 '기질 교정론(矯氣質論)'·'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틀어 막음(存天理遏人欲論)' 등도 마찬가지 논리를 지니고 있다. 이 모두가 '한 덩어리'로 '화(和)'할 것을 요구하며, 이들의 밑바탕을 흐르는 것은 '대대'·'변역'의 논리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지금까지 행정연구에서 주된 접근방법으로 사용되어왔던 기능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실증주의와 해석론적 인식론의 현상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각기 나름대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친 일차원적 접근이라는 한계로 인해 복잡한 행정현상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변증법적 인식론에 근거한 접근방법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실증주의와 현상학의 가정과 한계점을 검토하면서 그 과정에서 변증법적 관점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다음은 변증법적 관점의 이론적 대안으로 『주역』의 인식방법과 사유방식이 중점적으로 탐색되었다.

연구결과, 『주역』의 변증법적 관점은 행정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성찰적 행정의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주역의 변증법적 관점은 보다 적절한 문제 해결 활동에 일치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성찰적 행정은 현재의 행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여 위기 문제의 본질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정, 습관적인 행위 및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여 더 나은 대답을 개발하려는 변증법적 인식은 성찰적 행정의 훌륭한 수단이며 행위기술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찰적 행정의 변증법적 관점은 행정의 실제를 고착화시키는 수많은 운영적요소와 행정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단일 차원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적용과 통합을 요구한다. 특히 변증법적 사유로 통관하고 있는 『주역』의 세계인식원리는 개인과 사회를 상관적이고 동시적인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게 해주며, '현실'이란 주관과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상관에 의해 나타나는 전일적 현실임을 깨닫게 한다.

『주역』의 인식론이 성찰적 행정의 변증법적 관점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역』의 구체적 실천으로 제시되는 만물일체론·음양론·시위론 등은 행정연구에 있어서 다차원적 접근방법의 필요성과 함께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의 상호의존관계를 이해하게 해주며 조화와 상생의 원리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변역·상성·정체 등으로 표현되는 주역의 변증법적 사유는 변화의 관점을 통하여 일체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게 해준다. 동시에 지금까지 행정연구에서 즐겨 써왔던 요소환원주의의 분석적 연구 시각과는 매우 다른 포괄적이며 종합적 관

점의 구체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대대(對待)의 인식원리는 행정학 연구 방법론의 일차원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통한 발전'이라는 변증법적 논리가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연구접근방법에 있어서 실증주의와 현상학간의 조화 및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열어준다. 성찰적 행정의 변증법적 접근은 실증주의 및 현상학의 가정과 편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행정학 연구 접근방법을 찾아가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증법은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적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연구에 있어서 변증법에 대한 활발한 담론의 촉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변증법적 담론은 새로운 접근방법을 여는 중요한 행위기술이며 수단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셋째, 성찰적 행정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학의 연구대상인 행정 현상은 모순과 대립이 뒤섞여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로서 이해된다. 그리고 자기 비판적 행동은 행정의 극단적 차원으로부터 창조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증법적 관점에서 이론과 실제의 통합은 개별적 행정인의 자발적 자기성찰과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실천적 행위, 그리고 변증법적 담론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본 연구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차기 연구과제는 주역의 변증법적 개념과 원리를 행정현상 및 행정세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즉 주역의 변증법적 개념과 원리들을 통하여 행정세계의 대립적 현상 또는 접근방법(실증주의와 현상학 등)을 어떻게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이다. 변증법적 시각이 주는 함의가 아무리 크고, 행정이론의 재구축을 위한 적실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행정현실에서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면 또 하나의 지적유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 것은 우리 행정인 각자는 타인과의 관계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 편견을 깨뜨리는 노력, 즉 행정인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반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동적 행정인의 비판적 성찰이 있을 때에라야 주역의 변증법적 관점은 행정현실에서 더욱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신택,(2000).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서울 : 박영사.

곽신환,(1990). 「주역의 이해」, 서울 : 서광사.

김경동,(1983). 오늘날 사회과학 방법론을 둘러싼 쟁점들. 「현상과 인식」, 6(4).

_____,(1989). 『역경』의 사회학적 도식.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 서울 : 박영사.

김광웅,(1989).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 박영사.

김영성 외,(1998). 「행정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김영종,(1986). 현대행정학의 행정철학적 반성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20(1).

김영필,(1998). 「현상학의 이해」, 울산 : 울산대학교 출판부.

김재범,(2001). 「주역사회학」, 서울 : 예문서원.

김정렬·한인섭,(2003). 행정학위기의 실상과 대책. 「한국행정학보」, 37(4).

김종술,(1999).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서 본 행정학의 이해. 「정부학연구」, 5(1).

김준연,(1999). 「인식비판과 현상학」, 대전 : 문경출판사.

김항규,(2004). 「행정철학」, 서울 : 대영문화사.

남궁근,(2003).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 법문사.

민 진,(2004). 「조직관리론」, 서울 : 대영문화사.

박수영 외,(2005). 「현대사회와 행정」, 서울 : 대영문화사.

박연호·오세덕,(2002). 「현대조직관리론」, 서울 : 법문사.

백승균,(1982). 「변증법적 비판이론」, 서울 : 경문사.

오석홍,(1998). 「행정학」, 서울 : 나남.

이광모·최창현,(2002). 도가사상과 카오스이론의 비교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_____,(2003). 행정상 개념적 패러독스의 변증법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_____,(2005). 주역의 시스템사고 관점이 지역개발정책에 주는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이남인,(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도형,(2004). 「행정철학」, 서울 : 대영문화사.

이영찬,(1994). 이기론적 질서관. 「우리사회연구」, 2. 서울 : 파란나라.

이왕재 외,(2002).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이종수·윤영진,(2005).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이창원·최창현,(1998). 「새조직론」, 서울 : 대영문화사.

임석진,(1992). 「변증법적 통일의 원리」, 서울 : 청아출판사.

임채구,(2000). 「주역 왕필주」, 강릉 : 길.

정창수,(1980). 주역의 사회학적 해석. 「한국사회학」, 14. 한국사회학회.

최봉영,(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Ⅰ·Ⅱ. 서울 : 느티나무.

최석만,(1996). 동양사상에 대한 현대 사회학적 해석. 동아시아지역 콜로키움. 한국사회학회·국제사회학회. 「동아시아 사회학의 미래」.

한국주역학회 편,(1996). 「역학연구」, 1. 한국주역학회 편.

한국해석학회 편,(1999). 「해석학의 역사와 전망」, 서울 : 철학과 현실사.

高懷民,(1978). 「大易哲學論」. 정병석 역. (1995).「周易哲學의 理解」, 서울 : 文藝出版社.

Palmer, R.E. (1965).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Gadamer. 이한우 역. (1995).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Kagarlitsky, B. (1989). The Dialectic of Change. 송충기 역. (1995). 「변화의 변증법」, 서울: 창작과 비평사.

Sinha, D. (1968). Studies in Phenomenology. 전영길 역. (1995). 「현상학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Gouldner, A.W. (1970).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김쾌상 역. (1981). 「현대사회학의 위기」, 서울 : 한길사.

Jun, J.S. (1994). Philosophy of Administration. 윤재풍·정희남 역. (2001). 「행정철학」, 서울 : 대영출판사.

Bleicher, J. (1982). The Hermeneutic Imagination. 이한우 역. (1987). 「해석학적 상상력」, 서울 : 문예출판사.

朱伯崑 外. (1997). 易學漫步. 김학권 역. (1999). 「주역산책」, 서울 : 예문서원.

Capra, F. (1975). The Tao of Physics. 이성범 외 역. (1985),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 범양사.

_____. (1996). The Web of Life: A New Scientific Understanding of Living Systems. 김용정·김동광 역. (1999). 「생명의 그물」, 서울 : 범양사출판부.

Heidegger, M. (1927). Sein und Zeit. 전양범 역. (1992). 「존재와 시간」, 서울: 시간과 공간사.

Alexander, J.C. (1982). *Presuppositions, and Current Controversies,* Vol. I.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pel, K.O. (1988). *Perspectives for a General Hermeneutic Theory.* In K. Mueller- Vollmer(eds.). The Hermeneutic Reader. N.Y : Continuum, Publishing Co.

Fox, C.J. & Miller, H.T. (1995).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Discouse.*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Giddens, A. (1982).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uldner, A. (1970).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NY : Avon Books.

Habermas, W. (1971). *Theory and Practice*. Translated by John Viertel. Boston : Beacao Press.

_____. (1973). *Theory and Practice*. Boston : Beacon Press.

Haque, M.S. (1996). The Intellectual Crisi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Current Epoch of Privatization. *Administration and Society*. 27(4).

Harmon, M. (1981). *Action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NY : Longman.

Hook, S. (1970). *From Hegel to Marx*. NY : The Humanitis Press.

Hummel, R.P. (1982). *The Bureaucratic Experience*.(2nd ed). NY : St. Martin Press.

Husserl, E. (1931). *Ideas: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NY: Collier Books.

_____. (1965). *Phenomenology and the Crisis of Philosophy*. Translated by Quentin Lauer. NY : Harper & Row.

_____. (1967). *Ideas*. NY : Collier Books.

_____. (1973). *Experience and Judgement: Investigations in a Genealogy of Logic*. Translated by J. S. Churchill & K. Amerik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Jun, J.S. (1994). *Philosophy of Administration*. Seoul : Daeyoung Moonhwa International.

Schutz, A. (1967).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_____ & Luckmann T. (1973). *The Structures of the Life-Worl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Simon, H. (1968). Administration Behavior(2nd ed). NY : Free Press.

Abstract

A Dialectical Perspective of Reflexive Public Administration: Focused on an Epistemology of 『*The Book of Changes*』

Kwangmo Lee

The aim of this study confirmed a limitation of method of positivism and phenomenology, I hoped overcome with dialectical epistemology of 『*The Book of Changes*』. Neither functionalist nor interpretive epistemologist provide a comprehensive view of complex social reality. They argue may be viewed as one-dimensional administrative theories, since neither provides an adequate picture of the totality of administration. Therefore, both need to assume a self-reflexive stance toward the problem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oward their unwitting role in them.

In this study, I had proposed that a reflexive public administration can provide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social phenomena, and that hence may be able to discover new possibilities for reordering administrative institutions. For this reason, I introduced the concept of a reflexive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critical elements, to suggest the linkage between the concept of reflexivity and the method, and explored the philosophical ground for administrative praxis. At this point, a dialectical perspective could provide a frame-work for discovering theoretical alternatives and problem-solving activity relevant.

As a result of study, Methodology and thought of 『*The Book of Changes*』 is possibility a dialectical perspective of a reflexive public administration by means of good praxis action, and confirmed beyond one-dimensional administrative theory. Namely, Epistemology of 『*The Book of Changes*』 is a dialectical perspective, creative and integrative approach method, a interaction of conceptual contradictions in administration, and required necessary of dialectical discourse.

【Key words: reflexive administration, positivism, phenomenology, dialectic, 『*The Book of Changes*』】